

성숙을 넘어

이러한 성스러운 행위는 행위의 주체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오직 '행위 그 자체'만 순수하게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승화된 사랑은 대상을 보는 자신이 온전히 사라질 때에만 가능하다.

사랑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남산에 찾아든 개나리가 그러했고, 진달래가 그러했고, 목련이 그러했다. 봄이 찾아드는 때 순간이 이렇게 설레고 살아있던 적이 없었다. 봄이 지기 전 이런 순간이 화석처럼 굳어져 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었다.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일상 속에서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인지와 감정으로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표현이 또 있을까? 비고츠키는 <역사와 발달>에서 인간은 '시각장의 노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그 '무엇'임에 틀림없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랑은 성숙과 성장을 전제로 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인간 상호간의 일치와 타인간의 융합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일이다. 사랑은 대상과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능력이고 성숙의 이슈다. 이때 포커스는 단연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에 관여하는가에 있다. 이것이 사랑을 질적으로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더욱 완전한 사랑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염성이 있는 아이의 발을 씻겨주고 입맞춤하는 감동적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러한 성스러운 행위는 행위의 주체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고, 오직 '행위 그 자체'만 순수하게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승화된 사랑은 대상을 보는 자신이 온전히 사라질 때에만 가능하다. 김수환 추기경이 '평생을 사제로 살아오면서 맨날 입으로만, 머리로만 사랑했노라'고 탄식하면서, 자신이 '바보'였다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고 한탄해하시는 깨달음 속의 그런 사랑일 것이다.

성숙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덧'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현상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자아(ego)경계의 붕괴"다. 흔히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이 힘이 솟거나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순수한 사랑'이나 '사랑의 힘(the power of love)'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지극히 비정상 상태로 자기정체성과 예고의 경계가 무너져 생기는 일시적 환상이다. 욕구가 만들어낸 뇌 내 호르몬(hormone)의 장난인데, 한철 피고 떨어지는 꽃잎처럼 지속될 수 없다.

올봄, 내가 마주한 사랑은 지극히 크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 옛날 바다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화석처럼, 시공을 초월한 내 안의 그 '무엇'이 되었다.

Written by C.E.O James Roh(노상충)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이다. _ 비고츠키



James Roh

